

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 일시 : 2019년 7월 18일(목) 14:00 ~ 16:00
2. 회의 장소 :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7 서울숲L타워, 지하1층 신세계홀
3. 참석 인원 : 15명

방송사	지원담당 (확인 :) 방송제작팀장, 생활팀장, 생활팀 이성규 파트너, 심의파트장 미디어마케팅팀 이미라 파트너, 심의파트 허유강 파트너
위원회	이재호 위원장 (확인 :) 이성엽 부위원장, 강복희 위원, 박을종 위원, 서원태 위원, 장여옥 위원, 장진영 위원, 황준호 위원

4. 회의 내용 : 붙임.

[회의 내용]

- **방송사** : 사전심의 이슈사항 및 전월 회의 조치결과, 고객의 소리 처리결과 공유
- **시청자위원회** : 7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**시청자위원회** : 밸런스 운동기기 방송을 봤는데요. ‘코어/복부 자극, 체형 밸런스, 전신 스트레칭, 좌우 운동’으로 표기되어 있고요. 적외선 램프가 나오는 기기에 발을 넣고 좌우로 흔들어 하반신에 운동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치입니다. 적외선으로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족욕처럼 혈액순환이나 뭐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. 영상 중간에서 어깨 아프다고 주무르는 모습이나 턱 괴는 모습이 노출되어 상반신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교정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. 이런 제품의 효능에 관련된 부분은 구매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
- **방송사** : 기본적으로 하체, 복부(코어)를 자극하는 운동기구로 신체의 중심이 바로 잡히면 전체적인 신체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접근한 제품입니다. 인서트 영상의 경우 이 제품의 니즈를 표현한 영상으로 해당 자세의 직접적인 효능·효과가 아니라 불균형한 습관을 가진 분들께 권한다는 의미로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. 과장된 표현으로 효능이나 효과가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
- **시청자위원회** : 에어컨 방송에서 더운 날씨, 폭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신문기사 내용을 인용했는데 정보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‘인터넷뉴스’라는 표기보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‘월약54,973원X무36’이라는 문구에서 ‘월’과 ‘약’은 띄어쓰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
- **방송사** :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언론사를 노출하는 것이 인용된 자료의 신뢰성 면에서

는 더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언론사를 부각하여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서 지금처럼 인터넷뉴스, 지상파 방송뉴스 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.

- **시청자위원회** : 요즘 인터넷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수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러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거 아닌가요? 날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상청의 내용을 쓰면 되지 않아요?
- **방송사** : 기사 자료의 경우에는 광고성인지, 제품의 효능·효과를 나타내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방송에 인용하고 있고요. 기상청 자료도 좋지만 아무래도 신문기사의 타이틀 내용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이런 기사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POP 패널 제작 시에 띄어쓰기에 유의하여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.
- **시청자위원회** : 무선 청소기 방송을 봤는데요. 가격도 저렴하고 각종 도구를 이용한 시연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무선 청소기 구매에 있어서 핵심정보로 볼 수 있는 흡입력과 배터리 사용시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구입이 망설여졌습니다. 이런 핵심 정보는 충분히 설명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?
- **방송사** : 말씀하신 것처럼 무선 청소기의 흡입력과 배터리 사용시간 같은 부분은 상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방송 자막을 통해서 안내하고는 있지만 흡입력과 배터리는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이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. 향후 방송에서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- **시청자위원회** : 차기 회의는 8월 30일 금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. 이것으로 7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